

2019

제4호

발간년월 2019년 9월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감 수 홍현표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발행인 양창호 홈페이지 www.kmi.re.kr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 활성화 방안

황규환 수산정책연구실 연구원
(ghhwang@kmi.re.kr/051-797-4555)

주문배 수산정책연구실 연구위원
(mbjoo@kmi.re.kr/051-797-4570)

장홍석 수산정책연구실 연구위원
(changhs@kmi.re.kr/051-797-4542)

국민들의 먹거리 불안 문제가 근절되고 있지 않다. 먹거리를 배경으로 한 식중독 사고는 2002년 78건에서 2018년 363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사고 유형도 다양해졌다. 문재인 정부는 먹거리 안전을 위해 ‘생활안전 강화’ 정책을 기반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수산정책은 수산물의 위생·안전 문제를 제고하기 위해 장비 지원이나 시설개선에 중점을 둔 반면, 인력(Humanware)의 양성과 활용에 대한 투자는 미흡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산물의 위생·안전 문제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수산물품질관리사가 수산업 현장에 안정적 효과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정부에서는 수산물의 ‘품질 향상’, ‘유통 효율화’, ‘안전성 관리’를 위해 2015년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제도 시행 이후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취득자 수는 389명(최종합격률 3.4%)으로 많이 배출되었다. 그러나 자격증 취득자 중 실제 취업자 수는 11명(2.9%)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지만 효용가치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센티브의 채용 가점의 경우 채용방식이 달라 인센티브가 무의미하고, 승진 시 부여되는 가점도 이미 타 자격증으로 채워지는 등 실질적으로 많은 인센티브들이 효과가 미미했다. 즉, 수산물 위생·안전 전담인력으로 수산물 품질관리사를 채용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없다.

우선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구인·구직자 간의 불일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취득자,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취득 예정자, 수산 관련 기업·협화·단체 등 구인자를 대상으로 인식도 조사를 2019년 6월에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① 구인자의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에 대한 인식도가 저조했다(구인자의 33.3%만 인식). ②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은 구인자의 47%, 구직자의 59.4%가 현장 근무 시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③ 구인·구직자 간 요구 임금격차가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120만 원까지 크게 나타났다.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수립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품질관리 측면에서는 산지위판장의 ‘거점형 청정 위판장 조성사업’과 ‘위판장 위생 평가 기준 마련 및 우수 위판장 선정 사업’, 수산시장의 수산물 위생·안전 문제를 제고하기 위해 수산물품질관리사가 전담인력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다음으로 유통 효율화 측면에서는 수산물의 물류 표준화를 위한 새로운 어상자의 도입과 수산물의 등급분류 부문에서 수산물품질관리사가 활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법·제도적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수산물품질관리사가 수산분야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정책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수산물품질관리사가 수산분야에 많이 안착될수록 품질관리 및 유통 효율화 업무수행을 통해 수산물의 위생·안전 문제가 제고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유통 효율화는 수산물의 품질향상으로 이어져 수산물의 부가가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 수산물 먹거리 안전을 위해 도입 필요

■ 수산물, 위생·안전한 공급을 위해 품질관리 및 유통효율화가 무엇보다 중요

-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세계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수산물을 좋아하고, 즐겨먹는 먹거리 중 하나임
- 그러나 중국산 꽃게에서 납 검출 사건, 양젓물에 무게를 늘린 해삼과 소라 사태, 일본산 수입수산물에 방사능 오염 논란 등 수산물 먹거리 사건·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음
- 수산물은 외부 충격에 약하고 쉽게 부패하거나, 생산·유통 환경에서 직·간접적인 위험에 쉽게 노출되는 등의 특성으로 품질관리 및 유통의 효율화가 무엇보다 중요함
- 국민적 차원에서 먹거리 안전에 대해 정부의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을 묻고 있고, 문재인 정부도 먹거리 안전을 위해 ‘생활안전 강화’를 정책 기조로 삼고 있음

■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유통효율화를 목적으로 아심차게 도입

- 해양수산부는 2015년부터 수산물 품질의 향상과 유통의 효율화 촉진, 안전성 관리 등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를 추진하고 있음
 - 동 제도는 해양수산부에서 총괄하고, 자격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자격증 발급 및 관리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보수교육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음
 - 주요 직무는 ① 수산물의 생산 및 수확 후의 품질관리기술 지도, ② 수산물의 선별·저장 및 포장 시설 등의 운용·관리, ③ 수산물의 선별·포장 및 브랜드 개발 등 상품성 향상 지도, ④ 포장수산물의 표시사항 준수에 관한 지도, ⑤ 수산물의 규격출하 지도 등임
 -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실시되고 있음. 1차 시험은 4개 영역(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관련 법령, 수산물유통론, 수확 후 품질관리론, 수산일반)에서, 2차 시험은 2개 영역(수산물 품질관리 실무, 수산물 등급판정 실무)에서 각각 치러짐
 - 보수교육은 수산물 유통 관련 사업자 또는 기관·단체에 채용된 수산물품질관리사 중에서 최근 2년 이내에 관련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됨

취업률 2.9%에 그쳐, 정책지원 미흡으로 제도 활성화에 한계

■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수산분야 안착에 난항, 자격증 취득자는 많이 배출되나 취업자는 2.9%에 그쳐

-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 시행 이후 총 389명이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자격취득자의 연령은 60대가 가장 많아 연령대가 높고, 거주 지역도 수산업 비중이 낮은 서울특별시가 가장 많았음
-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취득자는 2015년 85명, 2016년 128명, 2017년 42명, 2018년 134명 등 총 389명이며, 최종합격률은 3.4%로 나타났음
-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취득자의 연령별 분포는 60대가 25.4%로 가장 많고, 50대가 21.9%, 40대가 18.3%, 20대 및 30대가 각각 17.2% 순으로 나타났음
-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취득자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특별시가 22.7%로 가장 많고, 경기도가 16.1%, 부산광역시가 13.7%, 인천광역시가 6.7% 순으로 나타났음
-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취득자의 취업자 수는 2015년 4명, 2016년 5명, 2017년 2명, 2018년 0명 등 총 11명으로(2.9%) 매우 저조했으며, 더욱이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으로 취업한 사례는 없었음

■ 인센티브 효용가치 낮아,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미흡

- 수산 업체들은 대부분 영세한데, 대다수의 수산 업체들은 제품을 생산하기에 급급한 상황에서 품질관리 및 유통효율화 업무는 소외되어 왔음. 또한 제도 활성화를 위해 만든 인센티브의 실질적 효용가치도 매우 낮았음
- 그리고 동 제도가 일반적인 정책의 추진과 자격시험 시행·관리로 양분되어 있어 복잡하고, 국민적 차원에서 수산물품질관리사 관련 정보의 수집에 한계가 있었음
- 이에 더해 수산물품질관리사 관련 관계자 면담조사 결과, 수산물품질관리사는 생산·유통 직종에서 품질관리 및 유통효율화를 위해 지도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나, 자격증 취득자들의 전문적인 역량이 부족할 것으로 조사되었음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취득자 중 98.6%가 수산분야 취업을 희망

■ 수산물품질관리사 이해관계자 대상 인식도 조사 실시

-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취득자,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취득 예정자, 구인자(수산 관련 기업, 협회,

단체 등)를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조사와 직접 대면조사를 병행하여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였음¹⁾

- 인식도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구인·구직자 간의 불일치성을 조사하였음

■ 낮은 자격증 인식도, 전문역량 강화, 구인·구직자 간 미스매치 등 제도 개선 필요

-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취득자의 고용으로 기업의 고용안정, 기업 경쟁력 제고, 생산물(또는 업무)의 품질 향상, 소비자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구인자 측면에서는 기업의 고용안정까지 기대하진 않았음
- 자격취득자들은 자격증 취득을 제안 받은 빈도가 높았던 반면, 자격취득 예정자 및 구인자들의 자격증 인식도는 매우 낮게 나타났음
- 구인자들은 회사 내 품질관리 및 유통효율화 업무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었으나, 인력 수급의 어려움으로 품질관리 및 유통효율화 업무는 계속 소외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취득자들은 수산분야로의 취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취득자들은 자격증 취득이 매우 어려워, 자격증 취득 만족도 및 취득에 따른 취업에 대한 기대치, 그리고 희망하는 임금수준 등이 전반적으로 높았음. 그러나 구인자 측면에서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취득자에 대한 별도의 혜택이 없어 구인·구직자 간 미스매치가 나타났음
- 이외 공통적으로 전문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체계의 개선이 필요하고,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체계적인 관리 및 구인·구직자 간 일자리 창출을 원활히 할 수 있는 홈페이지의 개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수산물 먹거리 위생·안전문제 개선을 위한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 활성화 방안

■ 수산물 먹거리 안전과 수산분야 인력(Humanware)문제의 개선을 위해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 필요

- 먹거리 위생·안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먹거리 안전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함. 이때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는 수산물의 위생·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하나의 좋은 대안임

1)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취득자가 수산업 현장에 안정적 효과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였음. 이를 위해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이해관계자 인식도 조사·분석을 통해 수산물품질관리사 활용 방안과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는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유통효율화를 통해 날로 높아지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고,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일자리 문제의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
- 수산물 소비에서 가격 요인보다 ‘신선도’, ‘맛’, ‘품질’과 같이 비가격적인 중요도가 크게 증가함
-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취득자들은 수산분야에 취직할 의향이 높고, 어떤 일자리든 상관없다는 응답이 높아 수산분야에 만연해 있는 일자리 기피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될 수 있음

■ 품질관리 측면에서 산지위판장 및 수산시장에서의 수산물품질관리사 활용

- 산지위판장에서는 수산물 위생·안전관리 전담인력(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취득자)의 배치를 통해 각 산지위판장의 시설수준을 고려한 수산물 위생·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함
- 정부에서는 전문기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전문 모니터링 요원(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취득자)을 배치하여, 각 산지위판장별 수산물 위생·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평가하고 이를 거점형 청정 위판장 지원사업의 사업자 선정에 반영해야 함
- 수산시장에서는 수산물의 위생관리 매뉴얼 개발을 통한 시장 내 위생관리와,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소매 수산시장 가격 표시제’의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에 수산물품질관리사를 활용할 것을 제안함

■ 유통효율화 측면에서 어상자의 도입 및 수산물 표준규격 분류에서의 수산물품질관리사 활용

- 수산물의 물류 표준화를 위해 새로운 어상자의 효과적인 도입이 필요한데, 수산물품질관리사를 활용하여 새로운 어상자의 사용실태 및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어업인들이 새로운 어상자를 사용하도록 계도할 수 있음
- 수산물의 표준규격 분류에서의 수산물품질관리사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이를 위해선 어종별·항목별 과학적인 기준 설정(정량적 기준), 업무 수행체계 확립(공인기관의 지정)과 수산물품질관리사와 산지경매사의 역할 재정립 등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함

■ 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체계 개선·통합시스템 개발·홍보 방안 제시

- 수산물품질관리사는 주로 지도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나 전문 역량이 부족할 것으로 조사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 이에 전문역량을 갖추기 위한 교육 커리큘럼이 마련되어야 함
-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의 효율적인 제도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해 수산물품질관리사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이 필요함. 시스템 개발을 통해 구인·구직자 간 일자리 매칭을 지원할 경우 수산물품질관리사의 고용 창출이 현저히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 마지막으로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방안을 제시하였음

KMI 현안연구 요약보고서

구분	제목	발행일
제1호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개발 연구	2019.09.04.
제2호	고등어류 수급통계 개선방안	2019.09.05.
제3호	해수욕장의 사회약자 포용성 증진 방안	2019.09.10.

URL: <https://www.kmi.re.kr/>